

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

성경말씀: 고전3:1-17

지난 주 휴거, 그리스도의 몸속 자는 나팔소리가 날 때에 다 채여 올라간다.

심장, 손, 손목, 손톱, 발, 다리, 털이라도 올라간다. 즉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자는 다 올라간다.

밍크, 여우 털 벗은 있어도 그날 못 올라간다.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로 인해 생성된 자들만 간다. 그러므로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.

구원: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, 그런데 먼저는 아이로 태어난다.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성장해야 한다.

엡4:11-15 설명

교회와 목사가 할 일: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야 한다.

성도가 할 일: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판단한 뒤 맞으면 먹고 성장해야 한다.

평생 아이로 있으면 부모의 고통이 가중된다. 하나님도 마찬가지

하나님의 속성: 공의

국가의 지도자는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(삼하23:3). 매를 줄 자에게는 매를,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(롬

13:4, 하나님도 마찬가지, 자녀들이라고 다 같은 보상을 받지 않는다.

인천 아시안 게임, 인천의 영광,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 힘을 다한다. 원래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.

고전9:24-25, 모든 사람이 받는 상이 다르다.

성도들에게 이 보상은 언제 주어지는가?

휴거를 받으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베마 심판석에 서게 된다(롬14:10-11). 베마의 심판석에서는 보상만

정한다. 내쫓는 일은 없다.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, 땅에서는 7년 환난기

끝에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(계19:7-8),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강림한다.

<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>,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성화의 삶의 필요성

고린도 교회의 문제

1-3절: 구원받은 자 중에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가 많다. 그 특징이 바로 시기 질투 파당이다.

4절: 파당의 형성, 교회는 바울이 세움, 아볼로가 나중에 그들을 양육함

5절: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도와준 사역자(종)에 지나지 않는다. 목사의 역할

6-7절: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. 사랑침례교회: 목사, 집사, 지역 인도자 여러 사람이 수고해도 지금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.

성도의 보상

8절: 사역자는 종으로서 별것 아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.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. 목사/성도 할 것 없이.

이 보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. 이 세상의 보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.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.

고전2:9, 보여주고 싶지만 유한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.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.

히11:24-26의 모세

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

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: 빌3:5-9

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의 보상에 신경을 쓰며 세상일을 일희일비하지 않았다.

오늘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다(히11:6). 믿음의 일이다.

보상을 받으려면 바른 기초 위에 일을 세워야 한다

9절: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농사요(수확이 있다), 하나님의 건물이다.

10절: 바울이 주건축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.

바울의 서신: 교회의 교리, 치리, 운영, 목회자 등 모든 것

11절: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,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(마16:18). 예수님 외에 다른 데 쌓은 것은 다 헛것이요,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.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교회에 해야 한다.

모든 성도의 일

- 12-13절: 금, 은, 보석, 나무, 전초, 짚, 휴거받는 날이 오면 그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시험하신다.
시험의 방법: 불로 태우신다. 불을 견디는 것들만 남는다. 일을 할 때 판단해야 한다.
- 14절: 성도의 일이 불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.
- 15절: 일이 불타서 재가 되면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.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다. 불에 의해 그슬린 채 겨우 구원만 받는다. 아마도 털과 같은 존재(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, 고린도교회 성도들)

구체적인 보상

1. 생명의 왕관: 이것은 순교자의 왕관이며 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다(약1:12; 계2:10).
2. 영광의 왕관: 이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나 목양자들에게 주실 왕관이다(벧전 5:2-4).
3. 환희의 왕관: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받게 될 왕관이다(살전2:19-20; 빌4:1).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. 이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. 개개인이 온 교회가 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(막10:45).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한 일, 예배 참석, 섬김, 미디어 선교 사역
4. 의의 왕관: 이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왕관이며 그 날 즉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(딤후4:8). 이 사람들의 특징, 거룩한 삶을 이룬다(벧후3:11).
5. 썩지 않을 왕관: 이것은 승리자의 왕관이며 자기 몸을 복종시킨 자들 즉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것이다(고전9:25).

우리의 신분

하늘의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땅의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.

구약 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

1.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다(출40:34-35). 주의 영광(세카이나 글로리)
2.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셨다(왕상8:11).
3. 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(요1:14; 14:7).
 - A.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.
 - B.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임을 배운다,
 - C.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였다(요2:19-21).
4.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? 지금 이 땅에는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다. 또 현재 그리스도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는다.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?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?
5.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 준다.
 - A. 오늘날에는 교회(성도들)가 하나님의 성전이다.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(교회)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신다(엡1:22-23).
 - B.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(딤후3:15)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처이다(엡2:22).
 - C.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(고전6:19).
 - D. 성도의 책임: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(고전3:17)
 - E. 교회의 각 지체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상태로 자라나야 한다. 즉 그들은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같이 되어야 한다. 우리는 어떤가?
6. 이 몸을 잘못 쓰면 하나님이 멸하신다: 고린도 교회 11장 주의 만찬 멸시

결론

하늘의 보상에 눈을 돌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바란다.

휴거가 일어나면 보상의 심판을 받는다.

히11:6

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.